

脂肪油硬化法의 特許權

—獨의 노르만이 最初取得—

脂肪油의 硬化에 관한 最初의 發明特許權은 1902年, 獨逸의 리프린스 시베케製油工場에 勤務하던 W·노르만이 取得하였으나 同製法에는 疑問이 많아 製造業者들로부터 그다지 活用되지 못했다.

더우기 1913년에는 英國法院에서 無効가 宣言되는 驚動까지 비쳐 말썽이 일었다.

世界的인 人口增大와 生活水準向上에 따라 비누와 固體脂肪에 대한 需要가 急增하기에 이르렀고 鯨油나 菜種油등의 脂肪油가 登場하여 이를 充足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契機로 지방유에 水素가 結合된다면 그硬化가 可能하다는 理論에 따라 여러 사람이 그硬化法을 研究試圖했으나 發見하지 못했다.

그러나 1900년에 사바티에와 선다란이 닉켈 또는 他金屬을 觸媒로 하는 古典的研究를 發表하였고 이 촉매의 効能으로 不飽和 내지 水素가 빠진 氣體物質에 수소를 結合하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方法이 발견됨에 따라 비스바덴大學 등에서 化學을 專攻한 W·노르만이 시베케製油工場에 勤務中에 脂肪油硬化프로세스를 발견하였다.

그는 사바티에가 닉켈觸媒로서 氣體狀物質에 水素를 添加한 것처럼 기름에도 수소를 첨가할 수 있음을 實驗過程에서 발견하였으나 그 成敗의 關鍵이 되는 使用材料의 特性을 몰랐기 때문에 그成功的實驗을 再現하지 못했다.

한편 1905년에는 비누製造業者인 크로스필드會社가 英國으로부터 授與한 노르만의 특허를 買受하였고 同社의 E.C·카이저가 노르만의 協力으로 새로운 秘訣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他國에 登錄된 특허권을 매수하

여 水素添加油의 獨占을企圖하였으나 그 成果는 分明치가 않다.

同特許에 따른 製品의 모든 原料中에서도 특히 鯨油中の 不純物이나 變種에 관하여 難題가 있었으나 끝내는 觸媒의 特殊한 製法을 發見하였고 1909년에는 每週 100t以上的 비누用 水素添加油를 生產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事業의 으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그들 特許權中 獨逸內의 것은 賣渡하였으며 食用에 관한 英國內特許權은 울겐스會社에 讓渡하였다. 울겐스에 特허권을 양도한 다음 프로세스의 利用에 대한 核心的인 노우하우는 노르만自身이 공장에서 直接指導하였다. 노르만은 그로부터 20여년동안 油脂處理에 관한 技術을 계속 지도하였다.

그후 노르만의 프로세스에 대한 實用性이 確立된 후에도 기름이나 水素 또는 觸媒의 各種生產裝置에 대한 發明이 잇달았고 여러가지 特허도 許與되었다. 이같은 特허는 지방을 이용하는 企業들에 의해 取得되었으나 複雜하고 長期의인 特許紛爭도 繢出하였다.

특허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노르만의 英國特許權이 特許明細書가 프로세스를 實施하는데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無効라고宣告되었다. 이에 따라 1914년까지는 同特許의 活用을 주저하였으나 노르만의 프로세스가 技術的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비누 및 食品用의 水素添加脂肪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結局 水素添加에 의한 脂肪油硬化프로세스의 발명은 製油工場에 從事하던 한 사람의 化學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脂肪產業에 採用된 프로세스도 그의 企業이라기보다는 그自身이었다는 점이 높이 評價된다.